큰 역사에서 작은 역사로
- 申東仁 自敍傳을 읽고 -

유동호*

Ⅰ. 글을 시작하며
Ⅱ. 어린 신동인의 눈에 비친 광복과 한국전쟁
Ⅲ. 가난으로부터 탈출, 그 후
Ⅳ. 글을 마치며

Ⅰ. 글을 시작하며

신동인은 1934년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에서 태어났다. 젊은 시절에 잠시 진해와 서울에서 생활했을 뿐, 그는 줄곧 고향에서 살았다. 신동인의 이력은 평범하다. 학동마을의 이장과 농지개량조합의 농사지도원을 역임한 것을 제외하면, 눈에 띠는 이력이 없다. 하지만 신동인이 전하는 삶의 이야기는 한국근현대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보통신시대[1]에는 지식이 소수의 사람에 의해 독점되지 않는다. 구텐

* 충북대 초빙객원교수

1) 정보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Data)이며, 통신은 정보자원(Data)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다. 요즘에는 정보자원들이 디지털자료로 바뀌어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통신시대를 디지털인터넷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유동호, 『히스텔링 - 역사, 문화콘텐츠를 입다 -』, 서경문화사, 2017, 32쪽).

베르크의 인쇄기술은 지식을 대중화하여,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인쇄기술은 지식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소수의 지식인이 지식을 독점하는 이른바 구텐베르크 은하계를 만들었다. 구텐베르크 은하계에서는 일방적으로 지식이 대중에게 전달되며, 대중은 전달된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구텐베르크 은하계가 깨지고 있다. 정보통신시대에는 지식이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쌍방향·다방향으로 공유된다.[2] 정보통신시대의 대중은 지식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다. 이러한 정보통신시대의 특성은 역사를 인식하는 방법에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날 대중은 역사를 소비할 때도 생산적 소비를 한다. 지식의 생산자가 된 대중은 기존의 공식 역사를 넘어, 새로운 역사에 호기심을 가진다. 지금까지 공식 역사는 국가·민족·지배층·승자·영웅 등의 관점에서 기록한 큰 역사였다. 개인·피지배층·패자·민중 등의 기억을 다룬 작은 역사는 공식 역사가 아니었다. 기존의 역사연구는 전체 역사 속에서 개인을 보았다. 하지만 대중의 역사 소비방식이 바뀌면서, 개인을 통해 전체 역사를 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실제 개인의 기억을 이용하는 미시사·구술사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3]

신동인은 한국근현대사 속의 굵직한 사건들을 보통사람의 눈으로 바라

2) 김기봉, 「해를 품은 달, 막장 사극인가 사극의 진화인가」, 『철학과현실』 93, 2012, 100~101쪽 ; 유동호, 앞의 책, 2017, 32쪽.

3) 개인의 기억은 공식 역사를 넘어, 과거를 다양하게 재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23~24쪽). 역사학은 과거를 다양하게 재현할 수 있는 기억의 가능성을 수용하여, 연구방법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실제 개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구술사·미시사·여성사 등이 활발히 연구된다. 거시적인 관점을 보이는 기존의 공식 역사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기억은 기존의 공식 역사를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기억은 지향점과 고정점이 상이하다. 이 때문에 개인의 기억은 주체와 인식, 그리고 주제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태지호, 『영상 재현을 통한 사회적 기억의 의미화에 관한 연구 : <독립기념관>과 <우리는 8·15를 어떻게 기억하는가>(KBS)에 나타난 1945년 8월 15일의 기억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2012, 19쪽). 개인의 기억은 하나의 역사사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역사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게 해준다. 이 때문에 최근 개인을 통해 전체 역사를 조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본다. 그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며, 개인을 통해 전체 역사를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Ⅱ. 어린 신동인의 눈에 비친 광복과 한국전쟁

신동인은 전쟁의 시기인 1934년 12월 28일에 태어났다. 일제는 1930년대 초부터 전쟁을 일으켰다.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는 만주사변·중일전쟁·태평양전쟁 등을 연이어 벌였다. 1930년대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군수물자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을 공표하였다. 국가총동원법은 일제가 전쟁에 쓰일 인적·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 만든 전시통제법이었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해 전시(戰時)에는 노동력·물자·자금·시설·사업·물가·출판 등을 통제하였고, 평시(平時)에는 직업능력 조사·기능자 양성·물자 비축 등을 명령했다. 국가총동원법은 식민지였던 조선에도 적용되었다. 조선의 수많은 사람이 강제로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갔으며, 식량과 자원이 공출되었다.[4] 신동인은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될 때 어린나이였다. 하지만 당시의 고통을 자세히 회상한다.

> 2차 대전 말기 왜놈들은 전쟁물자로 쓰기 위해 모든 농가에 가마니 치기를 독려했고, 농가마다 수백 매씩의 가마니 매수를 할당하여, 배당된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엄청난 고통을 가했다. 한겨울 밤마다 면서기와 경찰들이 동네를 집집마다 순회하며 가마니를 치지 않으면,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눈길에 끌어내어 패대기도 했다.[5]

> 그 뿐인가. 그들은 전쟁무기를 만든다는 구실로 가정에서 밥을 먹고 사는 놋그릇·놋수저, 심지어는 놋요강까지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조리 강탈해 가는 악랄한 학정을 폈던 그들이다. 학교 운동장은 전시식량을 증산한다며 복판에 소로 길만 내놓고는 모두

4) 최유리, 「국가총동원체제와 민족말살정책」, 『(신편)한국사 : 전시체제와 민족운동』50, 국사편찬위원회, 2001, 47~50쪽.
5) 신동인, 『아름다운 인생 정겨웠던 인연들 : 신동인 자서전』, 2011, 16쪽.

파서 밭을 만들어 곡식을 심었다.[6]

한편 식민지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일제는 민족말살정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일선동조(日鮮同祖)를 강조하며, 창씨개명·조선어 금지·역사왜곡 정책 등을 펼쳤다.[7] 신동인도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 신동인은 소학교 입학식에서 일본인 교장에게 "바르고 굳센 훌륭한 일본인이 되어서 대동아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자"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일본군 비행기 연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송탄을 아침마다 캐야 했다. 또 히라다(平田)로 성을 바꿔야 했고, 우리말을 사용할 때마다 가혹한 벌을 받았다.[8]

1945년 우리민족은 환희와 열광의 광복을 맞이했다. 어린 신동인은 어리둥절했다. 신동인은 신(神)과 같았던 일본인 교장이 동네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도망쳤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는 광복이 무엇인지 몰랐다. 하지만 어른들은 한껏 기쁨을 누렸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풍물패는 풍악을 올렸다. 하지만 해방 이후의 현실은 녹록하지 못하였다. 법질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회는 무질서했고, 일제의 수탈로 사람들은 가난했다. 신동인은 광복 후의 사회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 나라를 되찾은 기쁨에 온 나라가 흥분과 환호의 물결을 이루었지만, 오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나라 살림이나 가정 살림 안 곳간은 텅텅 비었고 백성들은 너·나 없이 초근목피(草根木皮)·조반석죽(朝飯夕鬻)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아야 했다. 땅 파서 곡식 심고 밭에는 목화 심어 무명 짜서 의식을 이어가며 자급자족(自給自足)해야 했다.[9]

해방이 되어 나라와 사회가 어수선하고 법질서가 제대로 가동

6) 신동인, 앞의 책, 2011, 24쪽.
7) 최유리, 앞의 논문, 2001, 42~47쪽 참조.
8) 신동인, 앞의 책, 2011, 23~24쪽.
9) 신동인, 앞의 책, 2011, 27쪽.

> 하지 못한 탓이었는지 동네 젊은이들 중에는 노름과 술 마시기가 성행했고, 무질서가 판을 쳤다. 당시 훈장 선생님은 이런 패륜행위 젊은이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다. 노름을 한다든가 술버릇이 눈에 거스르는 자는 가차 없이 서당으로 호출해 종아리를 때려 따끔하게 훈계하곤 하셨다.[10]

신동인은 어수선한 해방 정국(政局) 속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일장기가 걸린 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태극기가 휘날리는 학교에서 졸업을 한 것이다. 신동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미봉된 전쟁이었다. 또 국내 대결로 시작하여, 국제 충돌로 번진 대규모의 전쟁이었다. 남북한 사상자만 약 300만 명에 이르렀다. 한국전쟁은 우리역사 최대의 비극 중 하나이며, 한국의 현대사를 전전(戰前)과 전후(戰後)로 갈라놓았다.[11]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신동인은 가족들과 보리타작을 하며 일상을 보냈다. 어느 날 신동인이 사는 마을로 수많은 피난민이 몰리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알았다. 신동인이 사는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피난민들은 날이 저물면 집주인의 승낙도 없이 집을 점거하였고, 집주인은 주인행세를 할 수 없었다.”[12] 신동인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던 시기는 약 200년도 안 된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며, 전쟁은 역사와 문명을 크게 바꾼다. 전쟁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사회변동을 초래한다. 이 때문에 전쟁은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13] 따라서 우리는 전쟁을 알아야 한다. 단 전쟁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해야 한다. 전쟁의 원인과 배경을 알아야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며, 전

---

10) 신동인, 앞의 책, 2011, 32쪽.
11) 유동호, 앞의 책, 2017, 190쪽 ; 정병준, 「한국전쟁」,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下, 지식산업사, 2012, 395쪽.
12) 신동인, 앞의 책, 2011, 36쪽.
13) 방기철, 『한국역사 속의 전쟁』, 새문사, 2014, 14~15쪽.

쟁의 참혹한 결과를 알아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동인은 자신이 본 전쟁의 참혹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책상과 의자 등을 걷어치운 넓은 교실 바닥에는 수많은 인민군 부상병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즐비하게 마룻바닥에 누워 있었다. 팔이 잘려진 놈, 다리가 부러진 놈, 머리에서 붉은 선혈이 줄줄 흘러내리는 놈, 눈알이 빠져 나온 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엉엉 우는 놈,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놈 등등.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생지옥이 바로 여기였다.[14]

신동인의 가족은 전쟁의 참혹함을 끝내 버티지 못하고, 1953년 초 엄동설한(嚴冬雪寒)에 외가가 있는 천안 동면 화덕리 도명골로 피난하였다. 피난생활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매우 힘들었다. 신동인 가족은 일 년여 간의 피난생활을 마치고, 이듬 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집은 엉망이었다. 피난민들이 신동인의 집을 피난민 본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피난민들은 집의 가구들을 쪼개어 땔감으로 썼고, 곳간의 곡식들을 모두 먹어치웠다. 신동인은 당시를 회상하며, "전쟁이 나면 군대들에 의해 입는 피해보다 후방의 민간끼리의 피해가 더더욱 무서운 작용을 한다"[15]고 읊조린다.

1953년 7월 27일 미국과 소련의 주도 하에 휴전협정이 타결되었다.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종전된 것이 아니라, 휴전으로 미봉되었다. 종전되지 못한 열전의 여파는 현재 우리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적대적인 체제와 전시상태가 지속되면서, 남북한 갈등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국제냉전은 종식되었지만, 한반도의 냉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실정치와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국전쟁을 바라보았다. 남북한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 위해 전쟁의 기원과 성격을 규명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어떤 이념이 더 좋은가를 증명하기 위해 각

14) 신동인, 앞의 책, 2011, 41쪽.
15) 신동인, 앞의 책, 2011, 53쪽.

자의 이념과 체제 우위의 선전을 일삼았다. 결국 남북한은 접점이 없는 평행선만을 달렸다. 접점이 없으니, 전쟁과 휴전으로 생긴 갈등과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다. 현실정치와 이념을 중요시 여기는 사고와 방법으로는 한국전쟁이 남긴 의미와 상처를 이해할 수 없다. 한국전쟁을 이해하고,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작은 역사의 시각에서 당사자들의 체험을 드러내서 치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16] 한국전쟁을 몸소 겪은 신동인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자들에게, 한국전쟁의 상처를 치유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침을 가한다.

>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싸웠나? 그들은 도대체 남의 나라도 아닌, 같은 나라·같은 민족이 아닌가? 단군의 자손이며 배달민족의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인데, 무슨 철천지원수가 졌다고 총부리를 맞대고 피를 흘리며 죽이고 죽고 해야만 했단 말인가? 도대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 알량한 사상? 이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는다.[17]

Ⅲ. 가난으로부터 탈출, 그 후

신동인은 1955년에 입대하여, 1958년까지 진해 공병학교에서 군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군 생활 중이었던 1957년에 결혼을 하였다. 그는 제대 후 '화산재건동지회(花山再建同志會)'를 결성하여 마을 청소년들을 가르치던 중, 1962년 가톨릭대학 부속 성모병원에 취직하여 서울생활을 하였다. 신동인의 서울생활은 얼마가지 못했다. 신동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 신동인이 귀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부의 농지개혁정책이었다.

농지개혁정책은 소작인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을 부재지주(不在

16) 김기봉, 『팩션시대, 영화와 역사를 중매하다』, 프로네시스, 2006, 132~133쪽.
17) 신동인, 앞의 책, 2011, 37~38쪽.

地主)로부터 경작자에게 이양하는 정책이었다. 농지개혁은 1949년 농지개혁법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 휴전 후 정부는 1961년 농지개혁사업정리요강(農地改革事業整理要綱)을 제정하여, 1964년까지 농지개혁을 마무리 짓고자 했다.[18]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고 서울로 갔던 신동인은 "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논은 토지개혁이 되어 소작하는 사람에게 농토가 넘어 간다"[19]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것이었다.

귀향한 신동인은 마을이장과 농지개량조합 농사지도원을 역임하였다. 그는 1960~1970년대 정부의 중요 시책사업이었던 경지정리사업을 최 일선에서 수행했다. 신동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960~70년대 농촌사회의 현실과 발전과정을 생동감 있게 전한다.

1960년대 농촌의 농경지는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영농의 기계화도 미비했다. 이 때문에 농사철이면 마을의 모든 사람이 힘들게 공동작업을 했다. 당시 정부는 농촌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농기업선도부락(農企業先導部落)'을 지정하여 농촌혁신운동을 폈는데, 학동마을이 농기업선도부락에 선정되었다. 신동인은 이장으로서 다양한 혁신운동을 수행했다. 학동마을 사람들은 청주의 종축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수령하여 육계사업을 했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특용작물을 재배했으며, 뽕나무를 심어 양잠사업도 했다. 또 새로운 품종이었던 통일벼를 보급 받아 농사를 지었다.[20]

신동인은 그 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아, 농지개량조합(현 농어촌공사)의 농사지도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촌 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농지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비영리조직이었다. 신동인은

---

18)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하여, 농지개혁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김종규, 『한국 농지개혁과 지주층의 대응』, 경성대 박사논문, 1996 ; 김지현, 「해방후 농지개혁의 성격에 관한 일연구 : 한국자본주의 토대구축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논문, 1997 ; 한모니까, 「한국전쟁 이후 '收復地區'에서의 농지개혁법 적용과정과 그 의미」, 『한국근현대사 연구』, 2012.

19) 신동인, 앞의 책, 2011, 100쪽.

20) 신동인, 앞의 책, 2011, 102~103쪽.

진천 농지개량조합에 속한 이만 출장소에서 근무했다. 이만 출장소는 이월에 있는 화산제·송림제와 광혜원의 무수제·광혜제를 관리했다. 신동인은 농사가 시작되는 이른 봄에 저수지 문을 열었다가, 농사가 끝나는 가을에 저수지 문을 닫는 업무와 추수 후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징수하는 업무를 맡았었다.[21]

농지개량조합의 또 다른 주요 업무는 경지정리사업이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경지를 교환·변형하고, 개간·배수·관개 등의 설비를 개량하는 사업이었다. 1960년대 대부분의 농경지는 규모와 형상이 불규칙하였으며, 도로·용수로·배수로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더욱이 농가별 소유형태가 분산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농업경영이 어려웠다. 정부는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했다. 우선 분산된 농경지를 소유자별로 집단화하였으며, 불규칙한 형상의 농경지를 표준화하였다. 그리고 농로를 만들어 각종 영농장비와 농작물이 농경지로 쉽게 드나들게 하였으며, 용수로·배수로를 설치하여 급수·배수를 원활하게 하였다. 또한 농경지의 지력(地力)을 키워 생산성을 높였으며, 영농의 기계화를 추진하여 일손을 덜었다. 정부주도의 경지정리사업은 일정부분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였다.[22] 신동인이 이만 출장소에 근무하는 동안, 이월면은 장양들·내촌들·중산들·향림들 등이 경지정리를 했다.[23]

1960~70년대 정부는 경지정리 사업과 함께, 경제개발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리고 온 국민은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허리띠를 동여메고 경제발전을 꿈꾸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해가 바뀔 때마다 일하는 해, 더 일하는 해를 구호로 외치며 경제개발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24]

신동인은 환갑이 넘어, 평소 꿈꾸었던 한문 강의를 시작하였다. 신동인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꼬집고 해결방안을 제

---

21) 신동인, 앞의 책, 2011, 107~109쪽.
22) 다음 자료들을 참고하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 서술하였다.
조기준, 『한국경제사』, 일신사, 1962 ; 허협, 「경지정리의 실시 및 효과에 관한 소고」, 『寶雲-충남대학교』2, 1972.
23) 신동인, 앞의 책, 2011, 108쪽.
24) 신동인, 앞의 책, 2011, 90쪽.

시한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현재에 적응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려고만 한다. 이러한 삶이 과연 행복할까? 미래는 경험할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 알 수 없는 미래만 보고 사는 현실의 삶은 늘 결핍될 수밖에 없다.[25] 결핍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끔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운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요즘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다. 그런 탓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외톨이로 떨어져 살거나, 독거노인이 된다. 젊은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의 가정교육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학교는 학생들을 명문학교로 진학시키려고만 한다.[26]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성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인성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비행과 폐륜을 저지른다. 일부 학생은 수업시간에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하면서, 교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다. 또 부모와 갈등을 빚다가,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27]

노인학대 문제도 큰일이다. 지금은 단군 이래 가장 풍족한 시대이며, 장수하는 시대이다. 실제로 2011년 노인 인구비율은 11%에 달한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점점 높아진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약 45%이다. 신동인은 “시대가 변하여 효(孝) 사상이 퇴색되고, 노인 복지제도가 우보(牛步)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28] 노인 인구비율과 노인 빈곤율이 높은 가운데, 젊은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불안 속에 산다. 결국 젊은 사람들이 지닌 미래에 대한 불안은 노인학대로 이어진다.

요즘 사람들은 과거 없이 미래의 볼모가 되어 현재를 산다. 『검은 꽃』, 『퀴즈 쇼』,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이어지는 ‘고아 3부작’을 완성한 소설가 김영하는 “이전 세대의 경험과 규칙이 시시각각 무화(無化)되는 세계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고아”라고 말한다. 결

25) 유동호, 앞의 책, 2017, 106쪽.
26) 신동인, 앞의 책, 2011, 140~141쪽.
27) 신동인, 앞의 책, 2011, 173~174쪽.
28) 신동인, 앞의 책, 2011, 162쪽.

국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대개 '이전 세대의 경험을 물려받지 못한 고아들'이 만든 문제들이다.

신동인은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현대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그는 '가정과 학교에서 지식교육을 지양하고, 인성교육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인성교육의 가장 좋은 교재로 『명심보감(明心寶鑑)』을 추천한다.

> 『명심보감』에 실린 성현들의 금지옥엽 같은 교훈들은 시대를 초월한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도덕성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충·효·예·의에 교양과 덕망을 쌓아 지식인을 양성하는 마음의 양식이 될 것이며, 한 사람의 인격수련에서부터 가정을 올바로 이끌고 사회의 중견인물로 키워주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올바른 길잡이가 될 것이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며 한 번쯤 음미해 볼 만한 지침서라 확신한다.[29]

Ⅳ. 글을 마치며

기존의 공식 역사는 국가·민족·승자·지배층·영웅 등의 업적을 기록한 큰 역사였다. 큰 역사는 몇몇 사람의 역사이다. 역사탐구의 목적은 인간탐구를 완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교훈을 주는 것이다. 몇몇 사람의 큰 역사는 인간탐구를 완성하고,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데 큰 도움을 못 준다. 역사탐구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개인·패자·피지배층·민중 등의 기억을 다룬 작은 역사가 필요하다.

신동인은 "나는 남들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했으며,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는 굴곡을 겪으며 눈물겨운 삶을 살지도 않았다"고 스스로 말한다. 겉만 본다면, 신동인은 지극히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신동인은 누구보다 스스로 행동하고, 이유 있는 삶을 살았다. 자신을 큰 역사에 복무하는 조연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사는 주인공으로

29) 신동인, 앞의 책, 2011, 144쪽.

여겼다. 이 때문에 신동인이 살아온 경험과 기억은 작은 역사가 된다. 그가 자서전을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와 미래의 불안에 대비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개인을 통해 전체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준다.

[논문접수 : 2017.11.20, 심사시작 : 2017.11.23, 심사완료 : 2017.11.30.]

주제어 : 신동인, 작은 역사, 국가총동원법, 농지개혁법, 경지정리, 명심보감

【參考文獻】

신동인, 2011,『아름다운 인생 정겨웠던 인연들 : 신동인 자서전』.
김기봉, 2006.『팩션시대, 영화와 역사를 중매하다』, 프로네시스.
유동호, 2017,『히스텔링 : 역사, 문화콘텐츠를 입다』, 서경문화사.
방기철, 2014,『한국역사 속의 전쟁』, 새문사.
전진성, 2005,『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조기준, 1962,『한국경제사』, 일신사.
김기봉, 2012,「해를 품은 달, 막장 사극인가 사극의 진화인가」,『철학과 현실』93.
김종규, 1996,『한국 농지개혁과 지주층의 대응』, 경성대 박사논문.
김지현, 1997,「해방후 농지개혁의 성격에 관한 일연구 : 한국자본주의 토대구축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논문.
정병준, 2012,「한국전쟁」,『새로운 한국사 길잡이』下, 지식산업사.
최유리, 2001,「국가총동원체제와 민족말살정책」,『(신편)한국사 : 전시체제와 민족운동』50, 국사편찬위원회.
태지호, 2012,『영상 재현을 통한 사회적 기억의 의미화에 관한 연구 : <독립기념관>과 <우리는 8·15를 어떻게 기억하는가>(KBS)에 나타난 1945년 8월 15일의 기억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한모니까, 2012,「한국전쟁 이후 '收復地區'에서의 농지개혁법 적용과정과 그 의미」,『한국근현대사 연구』.
허협, 1972,「경지정리의 실시 및 효과에 관한 소고」,『寶雲-충남대학교』2.